

“불교사상으로 질병 다스려요”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준비 박재오씨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내 몸의 병을 다스리는 법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법조인 팀, 의료인 팀, 기자 팀 등이 모여 구성된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을 준비하는 박재오씨(41). 청주지검에서 검사로 8년간 재직하면서 강력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재오씨는 지난 1월 검사직을 사직하고 불국정토 건설을 원으로 하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박씨는 그 과정에서 부검에 참여하며 인간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병에 대한 관심은 관련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대체의학 쪽으로 기울었다. 주목나무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항암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 등 2백여가지의 대체의학 관련 연구 자료도 이미 있다.

올해안에 결성을 준비중인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은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각계 각층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만 의료센터, 휴양시설 등도 갖춰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생활하는 세상, 불국토를 지향한다. 이를 건설하기 위해 서양의학에만 의지하지 않는 의료개혁, 동양사상·불교사상으로서의 회귀, 자연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 같은 병은 현대 서양과학으로 고칠 수 없지만 마음에 있는 부처를 깨닫고 느낄 때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씨는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통해 의식을 정화해서 마음 속 부처를 깨달아 성불하고 질병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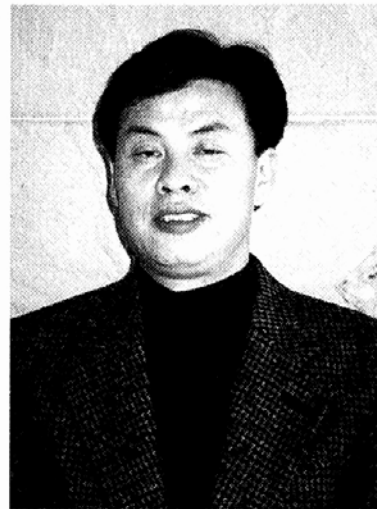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근본불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전 미얀마도 다녀왔다.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해 온 화산스님 덕분에 위빠사나와 인연이 닿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박씨는 올해 9월 동국대학교

법조인·의사·기자 모여 대체의학연구소 추진

불국대학원에 진학해 불국공부를 할 것이다. “《금강경》을 보면 이미 깨달은 이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주석을 한 것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경들을 나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느끼기 위해 불국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는 박씨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밑에서 불교를 접해왔기에 불국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리에 실망을 하고 군생활을 하면서는 《화엄경》 《법화경》 등 불경을 열심히 읽었다. 스님들도 많이 친했다.

박재오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박재오씨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질병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4년만에 검사의 꿈을 이룬 늦깎이 검사다. 훌륭한 검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불공을 드렸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도 불국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접은 박씨,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형벌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었다. 인간의 의식을 정화시키는 데는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기에 또다시 늦깎이 불국공부에 뛰어들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우리 모임에선

하북동 계시관 새단장

하이텔 불교동호회가 봄을 맞아 좀더 찾기 쉽고 눈에 확들어오게 계시관을 새단장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곳은 지역모임의 방이 대다수.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따로따로 분리되었고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두 곳의 지역법회가 새로 생겼다. 신행수기와 참회록은 합쳐서 신행수첩·수기·참회 코너로 개설했고, 선·기도·염불은 통합해 불독선원으로 꾸렸다.

동대 불국대학원 장례교육

동국대학교 불국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최정수)는 12일부터 7월 까지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불국장례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장례의식 교육에서는 장례의식 외에도 영락, 목탁, 제례의식, 염습 등의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장례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불경조봉사회(가칭)를 조직, 운영할 방침이다. 02)737-1053

지하철 범우회 안전캠페인

성북 승무사무소 범우회(회장 박병호)는 18일 1호선 석계역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안전운행 캠페인에는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같이 동참하게 된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장영효 (MBC 총무국위원)

내가 소속된 MBC에 불교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불자회가 생긴지 이미 4년이 흘렀다. 창립 때부터 총무 일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IMF 구조조정으로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회원들끼리 더 결속을 공고히 다져 매일 1회 정기법회와 4~5회의 전국 명산 대찰 순례법회를 꾸준히 봉행하고 있다. 4년 동안의 대찰 순례법회로 어지간한 대찰은 거의 다녀온 셈이다.

지난주에는 전주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에서 약 40명이 1박2일간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스님의 법문과 교육부장 스님의 배움을 옮겨잡게 하는 재담적인 법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날 새벽3시 도량석 도는 목탁소리에 일어나 나 간단히 세면을 한 후 법당으로 모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숙에서 짜든 온갖 번뇌망상을 씻어 버리기 위해 조용히 임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좋은데 의식이 부담스러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경내를 돌아보다 보면 법당에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께 오체투지 순례하게 되고.

으로 우리 불교인들은 절에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특히 초발심자들의 경우는 법당 안에 앉아 있는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절에서 행하는 의식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숙스러운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좋은데 의식이 부담스러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경내를 돌아보다 보면 법당에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께 오체투지 순례하게 되고.



“가족과 사찰 자주 찾았으면”

지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문화방송에서 수련회를 온다고 해서 내심으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그러냐고 여쭈더니 언론사 직원들의 자만심이 자칫 사찰분위기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불과 《천수경》 독경 등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다고 털어놓으며 남은 일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경함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 연구회가 처음 창립하여 불교의식을 행할 때 상당히 어수선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당황해 내가 조금은 절에 나가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동작을 필히 눈치채며 우리 회원들이 대중 분위기를 맞춰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매일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정기법회와 순례법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절에서 행하는 의식에 능숙해져 불공하는 특경소리와 정근하는 염불소리가 제법 법당을 압도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차츰 좋아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일반적

차츰 차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절에는 대부분 보살들이 많아 남자신도들 특히 초심자들은 절에 가는데도 많은 부담을 느낀다. 그럴 때는 부인과 함께 가기를 권한다. 부부가 함께 절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불교에 쉽게 동화될 수 있고 가정도 화목해질 것이며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게 된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되고 잘하는 일은 없다.

우리 불자들도 마음으로만 불자라고 하지 말고 주말 나들이를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절을 찾아가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해보기를 권한다. 한결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가 즐겁고 일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일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지므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날씨도 봄기운이 완연해 절에 가서 봄내음을 마음껏 마셔보자. 이것은 내가 4년 동안 직장 동료들과 불교신앙단체를 창립하여 법회를 봉행하면서 느낀 것이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통계·목록 표 만들면 간편

홈페이지 만들기 ⑩

어떤 홈페이지를 만드는 필수조건인 표를 만들어 보자. 기본 도구 막대에 있는 표만들기 아이콘을 누르고 만들고자 하는 표 만큼 줄과 칸을 선택한다. 커서가 있는 위치에 지정할 수 만큼의 표가 만들어진다. <그림1>



표 내부의 셀 경계선을 지우려면 표지우기를 사용하면 된다. 표지우기 아이콘을 누르고 커서를 표로 가져가면 커서가 지우개 모양으로 바뀐다. 지우고자 하는 셀의 왼쪽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드래그하면 지워질 셀들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빨간색이 지정된 셀이 지워진다.<그림2> 표 도구의 셀 나누기 합치기를 이용하면 셀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좀더 세밀한 나만의 표를 만들고 싶다면 ‘표그리기’ 메뉴를 선택한다. 연필 모양으로 변한 커서를 원하는 크기 만큼 드래그 하면 표 외곽선이 그려진다.<그림3> 표 내부의 셀 경계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된다.

mirrk.new 21.org

경전 검색엔진 떴다

인터넷 상에 제공되어 있는 모든 불교경전 자료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문 검색엔진이 개설돼 자료 축적 중이다.

불교경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검색엔진 84000(http://mirrk.new21.org)은 불교전문 검색엔진 선재를 운영하고 있는 불국대학이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불교경전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 검색엔진에는 경소부, 남전부, 대집부, 밀교부, 아함부, 한국한술, 화엄부 등 22개 카



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 가운데 경집부, 반아부, 법화부, 정토부 등 7개 카테고리에는 경전 자료가 올라가 있으나 나머지 카테고리는 자료 수집 중이다. 현재 58개의 불교경전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클릭! 새 홈페이지

- 쌀바위(soback.kornet.net/issalbawe)-충남 부여 미암사 인근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은 쌀바위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http://cafe.daum.net/akfrh)-3월24일 개설. 불국봉사단체인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의 알림터.
- 제천반야화상 투!!!(http://cafe.daum.net/1215)-3월25일 재개설. 제천반야화상회 동문 모임.
- 미타랜드(http://cafe.daum.net/mital)-3월25일 개설.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opia.com

에서 실천하기 위한 모임.

- 중불회(http://cafe.daum.net/caubuddhist)-3월25일 개설. 졸업한 휴학회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 왕사(http://cafe.daum.net/wangsa)-3월 27일 개설. 석왕사 청진회 모임
- 천불도량 서원사 선전사 스님의 홈페이지(http://seowonsa.hihome.com)-종교와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 현실적인 문제 위주로 다룬 홈페이지.
- 대구구도회(http://cafe.daum.net/gudo)-3월28일 개설.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 법회 및 회원들간 연락처 안내.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조선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철(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철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현 사례

생리통·기미 33세인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통증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동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후부터 신기하게도 한 단편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도 곤란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깨워지는 증상에 () 꼭 실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통이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당선으로 고생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향방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